

# 빌 게이츠 손잡은 최태원...‘넷제로’ 앞당긴다

(SK그룹 회장)

‘테라파워’ 원자로 상용화 사업 참여  
무탄소 전력 공급에 탄소중립 실현  
“8년내 세계 감축 목표량의 1% 기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손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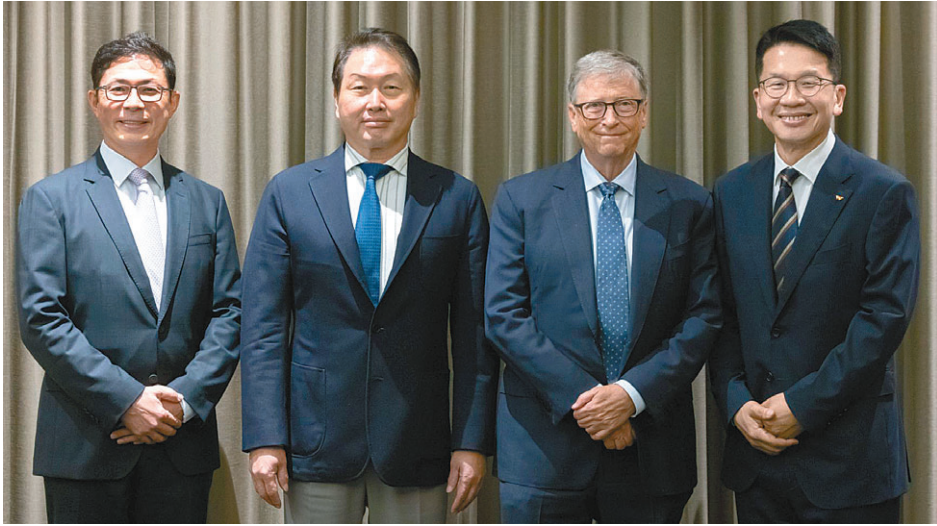
SK(주)와 SK이노베이션(이하 SK)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에 3000억 원을 지분 투자하기로 했다. SK가 원자로 관련 투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온 ‘그린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 및 ‘넷 제로(Net-Zero)’ 조기 달성 전략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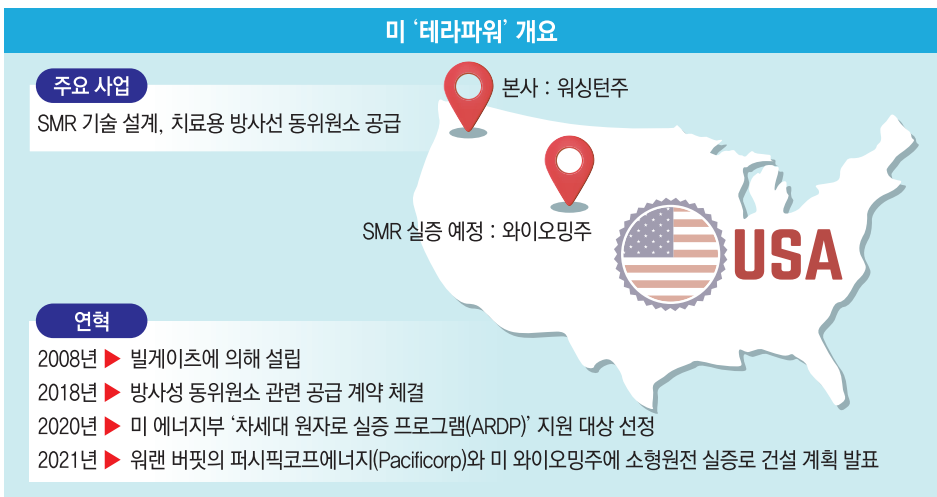
## ●차세대 원전 업계 최대 규모 투자

SK는 미국의 SMR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의 7억5000만 달러(약 979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빌 게이츠와 함께 공동 선도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테라파워의 이번 투자 유치는 지금까지 차세대 원전 업계에서 이뤄진 단일 기업 투자액으로는 최대급이다. 이를 통해 테라파워가 진행 중인 SMR관련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는 최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TUS) 승인을 받아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와 동남아 등에서 진행될 테라파워의 원자로 상용화 사업에 참여해 무탄소 전력 공급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회동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SK바이오사이언스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는 차세대 원자로의 한 유형인 소용량 고속로(SFR) 설계기술을 보유한 원전 업계의 혁신 기업이다. SFR 기술은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연료를 통해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 냉각재로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 단계 진일보

한 4세대 원전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최태원 회장, 1년간 검토 끝에 투자 결정

SK의 테라파워 투자는 지난해 6월 확대경영회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넷 제로’ 조기 달성을 결의한 뒤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투자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뤄졌다.

SK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 주도로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감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으며, ‘탄소 배출 없는 안전한 전력원’으로서 SMR 경쟁력에 주목해왔다.

테라파워는 SMR 외에도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인 액티늄-225(Ac-225) 생산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액티늄-225는 정상 세포 손상 없이 암세포를 표적, 파괴하는 표적 알파 치료제의 원료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K는 테라파워와 기존에 투자한 바이오 기업들 간 협력을 통해 치료제 개발 및 위탁생산 등 바이오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주) 김무환 그린투자센터장은 “테라파워의 혁신적 차세대 소형원전 기술과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역량에 SK의 다양한 에너지,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연계시키면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테라파워 크리스 르베크 CEO는 “테라파워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와 암 등 우리 세대가 당면한 가장 도전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과 만나 저개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한국남부발전 3개사가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케미칼

## 롯데그룹 화학군-한국남부발전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 ‘맞손’

롯데그룹 화학군(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과 한국남부발전이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사업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해외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공동개발, 암모니아 인프라 설비 운영 기술정보 교류, 수소·암모니아 활용사업 협력, 수소·암모니아 관련 공동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암모니아 혼소(화력발전소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암모니아를 혼합 연소해 탄소배출을 감소)를 적용한 석탄발전소를 24기로 늘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암모니아 수요는 현재 약 140만 톤에서 2030년 약 1000만 톤으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EU의 탄소세 발효 움직임과 맞물려 청정 수소·암모니아의 원활한 공급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 김연섭 ESG경영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롯데그룹 화학군과 한국남부발전은 단순한 암모니아 운영 협력 뿐 아니라 수소·암모니아와 관련한 전후방 사업에 걸쳐 포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탄소저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삼성SDI, 美 이어 유럽 등에 R&D연구소 설립

삼성SDI가 미국과 유럽에 R&D 연구소를 잇달아 설립하며 글로벌 R&D 역량 강화에 나선다.

삼성SDI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보스턴에 ‘SDI R&D America(이하 SDIR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SDIRA는 삼성SDI의 미국 내 첫 번째 R&D 연구소다. 7월 1일에는 독일 뮌헨에 ‘SDI R&D Europe(이하 SDIRE)’을 설립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중국 R&D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해외 R&D 연구소 설립은 지역별로 특화된 배터리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SDIRA는 리튬이온 배터리 혁신 기술 및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이 활발한 우수 대학, 스타트업과 협력할 계획이다. SDIRE는 배터리 공정 및 설비 연구 개발에 강점이 있는 우수 대학, 연구기관과 R&D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인력 확보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지역별 R&D 거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 새 먹거리 키우는 LG화학...美에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 ADM과 공장 설립 본계약 체결 일리노이서 연간 7.5만톤 생산

LG화학이 미국 ADM(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과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수요 규모는 2021년 107억 달러(약 14조 277억 원)에서 2026년 297억 달러(약 38조 936억 원)로 연평균 2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산업이다.

LG화학은 16일 서울 강서구 LG화학 마곡 R&D 캠퍼스에서 ADM과 LA(젖산) 및

PLA(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 합작법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ADM은 식음료와 영양, 지속가능 솔루션 시장을 주도하는 뉴트리션 기업이다. 전 세계 농업 공급망과 곡물 가공 기술을 갖고, LG화학과는 식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소재 개발에 협력해 왔다.

양사는 식물 기반 제품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개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원재료를 생산하는 LA 생산 법인 ‘그린와이즈 락트’는 ADM의 발효 기술력을 활용해 연간 15만톤의 옥수수 기반 고순도 젖산을 생산한다.

LG화학의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LG화학 일리노이 바이오캡’은 그린와이즈 락트에서 생산한 젖산으로 연간 7만 5000톤 규모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생산 시설은 2023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일리노이주 디케이터에 건설된다.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통합 생산 가능한 PLA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은 LG화학이 처음이다.

LG화학은 합작법인 설립으로 상업적 규모의 PLA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젖산 생산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부가 제품 개발에 바이오 원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PLA는 옥수수를 발효시켜 얻은 젖산으로 만든 대표적인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인체에 무해해 주로 식품 용기나 빨대, 생수병, 식기류, 티백 등에 쓰인다.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수개월 안에 자연 분해되며,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도 기존 플라스틱의 4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LG화학 CEO 신하철 부회장은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인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에 대응하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17일 (수) 음력: 7월 20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                                                                                                                                   |                                                                                                                                   |                                                                                                                               |                                                                                                                                       |                                                                                                                                         |                                                                                                                              |                                                                                               |                  |                                                                                                |                  |                                                                                                 |                  |
|-----------------------------------------------------------------------------------------------------------------------------------|-----------------------------------------------------------------------------------------------------------------------------------|-------------------------------------------------------------------------------------------------------------------------------|---------------------------------------------------------------------------------------------------------------------------------------|-----------------------------------------------------------------------------------------------------------------------------------------|------------------------------------------------------------------------------------------------------------------------------|-----------------------------------------------------------------------------------------------|------------------|------------------------------------------------------------------------------------------------|------------------|-------------------------------------------------------------------------------------------------|------------------|
|  <b>쥐</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b>소</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호랑이</b>                                          | 행운색: 검정<br>길방: 북                                                                                                             |  <b>토끼</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용</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뱀</b>  | 행운색: 청색<br>길방: 동 |
|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뒤흔들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 갑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인간관계보다는 일에 집중하라. |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황재수가 있다.                 |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                                                                                               |                  |                                                                                                |                  |                                                                                                 |                  |
|  <b>말</b>                                      | 행운색: 청색<br>길방: 동                                                                                                                  |  <b>양</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b>원숭이</b>                                          | 행운색: 검정<br>길방: 북                                                                                                             |  <b>닭</b>  | 행운색: 검정<br>길방: 북 |  <b>개</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돼지</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 웅담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정신적으로는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바쁘지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날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움직여라.  |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서두르면 낭패 본다. 침착하라.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겹치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지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도전적이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을 갖게 된다. |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서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오히려 일만 커질 수 있다. |                                                                                               |                  |                                                                                                |                  |                                                                                                 |                  |

| 오늘의 날씨 |       |    |       | 17일(수) |                  |  |  |
|--------|-------|----|-------|--------|------------------|--|--|
| 서울     | 10/20 | 인천 | 0/0   | 춘천     | 20/60            |  |  |
| 강릉     | 80/70 | 대전 | 20/20 | 전주     | 30/20            |  |  |
| 광주     | 30/20 | 대구 | 60/30 | 부산     | 90/60            |  |  |
| 창원     | 90/60 | 제주 | 80/80 | 지역     | 강수 확률<br>(오전/오후) |  |  |
|        |       |    |       | 날씨     | 최저<br>최고기온       |  |  |

|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                   |                 |            |          | 제3889호   |  |
|-------------------------------------------------------|-------------------|-----------------|------------|----------|----------|--|
|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 편집국장 연재호          | 사업총괄 김성수        | 광고국장 이송욱   |          |          |  |
| 편집부장 안도영                                              | 스포츠부장 소로초부장 정재우   |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 사진부장 고충철 | 인쇄 동아일보사 |  |
| 광고문의 02-361-1612                                      | 구독신청 1588-2020    | FAX 02-361-1617 |            |          |          |  |
|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                   |                 |            |          |          |  |
|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                   |                 |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                   |                 |            |          |          |  |
| 대표전화 02-361-1610                                      | 제보·투고 02-361-1616 | sol@donga.com   |            |          |          |  |